

오쿠보 나가야스의 묘소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초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1600년에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획득한 후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를 은광의 감독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광산 업무에 숙련된 관리자이자 전문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나가야스는 이에야스의 신뢰에 부응하여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내보였습니다. 이에야스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은 나가야스는 후에 사도섬(현재의 니가타현 앞바다)과 이즈(시즈오카현)의 금광 등 귀금속 자원이 풍부한 수많은 광산에서 감독자로 등용되었습니다.

나가야스는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미 묘비라기보다는 기념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무덤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일본에서는 생전에 무덤을 세우면 덕을 쌓을 수 있다고 여김). 그러나 나가야스의 사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가야스가 횡령과 반역 혐의를 받게 되면서 그의 일곱 아들과 부하들이 자살을 강요당하고 재산 역시 전부 압류되었던 것입니다. 이 고발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이야 어찌됐든 오쿠보 나가야스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은폐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기념비 역시 파괴되거나 무시당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와미 은광 사람들은 1794년이 되어서야 새로운 묘비를 세우는 것에 찬성했는데, 이 묘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나가야스는 은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갯도를 여러 개 개척해 은광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초석을 닦은 인물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나가야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가 개발한 갯도 중 하나에 그의 성을 붙여 오쿠보 갯도라 부르게 되었습니다.